

① 세월호특별법 갈팡질팡 행보에 민심도 당심도 등돌렸다

‘4대 악재’에 길 잃은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암울하다. 7·30 국회 의원 재보선 참패 이후, 과감한 혁신을 통해 거듭날 것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리더십 부재와 내부 반목 등으로 제1야당의 존재감마저 잃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려운 ‘불임 정당’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싸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조망해 본다.

◇세월호특별법 정국=‘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였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내부 단결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한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은 물론 당내의 적극적인 소

② 리더십 부재-구원투수 박영선 실패는 성적

③ 사라진 혁신-차기 당권싸고 계파갈등 내홍 조짐

④ 지지율 추락-10% 최악...존재감마저 없어

통없이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덜컥 특별법 합의를 하고 다시 파기하면서 오히려 심각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유가족과 민심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월호특별법 파행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내세우며 장외투쟁을 전개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에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과육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가 ‘원 샷’에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타개하면서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다 오히려 눈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갈팡질팡 리더십=박영선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참패의 눈에 빠진 당을 견제할 구원투수로 전면에 나섰다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다.

지난달 4일 ‘무당무사(無黨無私)’ 정신을 내세워 극한 투쟁 등 ‘납은 과거와의 단절’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세월호 정국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이 두 차례나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한다. 이어 스스로 단절을 선언했던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모양이 우습게 됐다. 박 대표가 장외 투쟁 카드를 선택한 것은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타개할 별다른 방안이 없기도 했지만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장외 투쟁을 놓고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가 충돌하는 등 내홍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사퇴 등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분당’마저 거론하는 등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내부 반목이 심각하다는 관측이다.

세월호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내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리더십 부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대주주들은 차기 당권 구도 등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혼란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라진 ‘혁신’=7·30 재·보선 참패 이후, 새정치연합은 위기 때 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인 혁신을 다짐했지만 그마저도 실종됐다. 당장, 지난달 20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비상대책위원회(국민공감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세월호 정국에 휩싸이면서 혁신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계파가 복잡하게 얽힌 당내 상황도 상황이지만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혁신을 매개로 한 당내 기록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비대위원 인권권한 여부 및 후임 비대위원장직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차기 당권 등 주도권 경쟁이 조기 점화하면서 당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이다.

박 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에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특정 계파의 입김

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비대위원에 내정됐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 추락=새정치연합이 제2리지를 찾지 못하면서 지지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창당 직후, 최고 38.3%까지 기록했던 지지율은 현재 1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지지율이 반토막난 것은 물론 40%대 초반과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계기와 방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내 혁신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차기 정권 창출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달라지지 않고는 지지율 반등도 차기 정권 창출의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야당의 기록권에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차기 정권 창출은 구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영선 “국회의장 중재도 거부 與, 집권당 맞나”

세월호법 여·박대통령 결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여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진도 팽목항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추석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정작 찾아야 할 곳은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하고 가장 아파하는 세월호 유족과 팽목항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특별법 협상 중재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가졌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연일 ‘민생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입법”이라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의료민영화로 재벌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대책)은 강남의 부동산 부자만 살찌우고, 카지노 만들고 학교 근처에 호텔 만드는 게 어떻게 경제살리기이고 민생인가”라고 따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악수하는 박영선·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동료감싸기’ 비판 등 후폭풍 예상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이다.

송 의원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장기파행 하는 상황에서 비리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난국 타개 유일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야당도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시점여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민생 행보는 국회 파행과 관계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

월호 사고 이후 침체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건축 재정을 확대 재정으로 전환한 사실을 언급, “경제를 살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심의의 조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금호지점/평안지점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9. 6(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아간반'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면 한자교육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특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면 한자교육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로렘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속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돈사,계사 등) 지붕 / 사로렘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